

주일가정예배

[부부/스승의 주일]

2022년 5월 15일 주일예배

인도: 가족 대표

기 원 **인도자**

9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 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10 그 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사11:9-10)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주님의 크신 사랑을 찬양합니다.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니, 주님은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돌보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우리도 그 사랑 본받아 우리에게 보내주신 자들과 주의 은혜를 나누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주님의 꿈을 이루는 자들 되게 하옵시고, 필요한 것들을 깨달아 높고 낮음이 없는 공평한 세상, 물질보다 사람이 중요한 평화로운 세상, 따뜻한 마음으로 서로를 돌보는 온기 있는 세상을 세워가게 하옵소서.

여기에 모인 우리에게 주님의 꿈과 사명을 감당할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옵시고. 세상을 이기신 주님의 승리를 담대한 믿음과 말씀에 순종함으로 다같이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 **다같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 송 **10장** **다같이**

1.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2. 강성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3.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집소서
4. 성삼위 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중 뵈옵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기 도 가족 중

성경봉독 요한복음 12장 47-48절 인도자

47.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48.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설 교 『창조자의 정신』 인도자

기 도 설교자

찬 송 197장 다같이

1.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2.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케 하여 주옵소서
3.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4.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후렴)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주기도문 다같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 광 고 】

1. 코로나19의 빠른 종식과 수고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홀리아카데미> 성경공부 소그룹 모임이 주님 은혜로 잘 진행되기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지역사회에 복음의 빛을 비추는 교회(마을목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5. 헌금안내
※ 중앙교회 공식계좌로 이름과 헌금종류를 적어 송금하시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예) “이름+감사” / “이름+주일” / “이름+십일”
※ 중앙교회 공식계좌: 기업은행 022-046724-04-012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중앙교회

창조자의 정신

요한복음 12:47-48

도로시 세이어즈(1893-1957)는 목사의 외동딸로 태어나,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언어학을 전공하고 최초로 학사와 석사 학위를 받은 여성이다. 그녀는 『창조자의 정신』(1941)을 발표하여 윌리엄 템플 대주교에게 램베스 신학 박사 학위를 제안받았지만 거절했다. 신학자가 아닌 것이 변증에 효과적이라 판단했다. 이번 설교는 『창조자의 정신』을 바탕으로, 작가인 그녀가 창조적 정신의 유형에 근거하여 기독교의 핵심 교리인 삼위일체를 나름대로 설명하는 것을 보게 된다. ▶요 2:44-50절 단락을 통해 예수님은 성부와 같은 신성을 드러내신다. 예수님은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고,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라고 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동일하다는 것이다. 자신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고, 마지막에 자신이 하신 말씀이 심판하신다는 것이다. 그 말씀은 영생이다. ▶작가가 책을 쓰는 창조적 활동 과정에는 세 가지 독특한 단계를 거친다. 아이디어 단계, 실현 단계, 독자 교감 단계. 저자의 정신이 글쓰기로 구현되고, 다시 독서와 이해에 도달한다. 저자의 사상은 독자의 마음으로 들어갈 때 완성된다. 문학작품의 창조 작업의 삼 원소는 아이디어와 에너지와 힘이다. 창조적 상상력, 상상력을 구체화시키는 에너지, 상상력이 타인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그것으로 삼위일체다. 이 셋은 이론적으로는 분리될 수 있지만 하나로 존재한다. 작가는 자신의 아이디어를 인물을 통해 묘사한다. 하지만 작가의 아이디어는 그 등장인물과 시대적 배경에 제한을 받으면서 그것을 구현해 나간다. 작가와 등장인물의 관계를 살펴보면, 등장인물은 곧 작자와 동일인이다. 하지만 등장인물은 구체적인 정황에 얽매인다는 관점에서 작가보다 열등하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도 이와 동일하게 설명할 수 있다. 인류를 죄와 사망 권세에서 구원하고자 하는 뜻이 하나님께 있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구원 경륜 상 보내시되 몸을 입고 시공간의 제약을 받고 오신 분이다. 그때는 아들은 아버지보다 열등하지만, 아들은 곧 아버지라고 할 수 있다. 말도 삼위일체가 적용된다. 말도 그 사상과 생각이 있다. 그것을 구체적인 어휘와 문법을 통해 전달한다. 그리고 그 말이 듣는 자의 마음에 들어가서 어떤 작용을 일으키고 그것이 발화자에게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다시 돌아가게 된다. 말이 갖는 창조적인 힘이 바로 이런 것이며 그 때문에 말은 위험한 것이기도 하다. ▶도로시는 이 삼위일체를 책으로 설명하기도 한다. ①생각으로서의 책. 작가의 머릿속에 존재하는 그 책에 대한 아이디어. 그러나 그 아이디어는 물질적으로 표현될 때까지는 독자에게는 미지의 것이다. ②쓰여진 형태의 책. 그것은 창조된 에너지이고 구체화된 말이며, 아이디어의 명백한 형상이다. 등장인물, 에피소드, 단어와 문장들, 문체, 문법, 종이와 잉크, 줄거리. 창조적 에너지의 구체화는 전적으로 시공간의 틀에서 일어난다. 몸을 입는다. ③읽히는 책. 책이 사람들의 정신에 미치는 영향력을 의미하는 창조적 힘이다. 이처럼 작가의 아이디어가 초월적 시간에서 유한한 시간으로 들어왔다가 다시 영원의 시간으로 되돌아간다. ▶기독교의 핵심 교리인 삼위일체는 성부(제1위의 하나님)와 성자(제2위의 하나님)와 성령(제3위의 하나님)은 하나라는 것이다. 물론 구분은 된다. 1위와 3위는 외형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무형에 순수한 지적 상징물로서 시간, 공간, 물질계에 어떤 것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나 2위는 살아 있는 상징물로 역사 속의 사건으로 묘사된다. 결론적으로 아이디어, 창조적 에너지, 창조적 힘은 구별은 되지만 본질적으로 동일하며, 그 동일함이 작품에서 삼위일체로 반영된다. 책은 형태는 달라도 생각에 머문 책이든, 쓰인 책이든, 읽히는 책이든 모두 똑같은 책이다.